

노인일자리 참여 유형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 of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and Life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gainst Depression–

박명옥, 문재우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Park-Myung Ok(okpark1024@naver.com), Moon-Jae Woo(moon1229@hansei.ac.kr)

요약

본 연구 목적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인 일자리 참여 유형이 우울감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규명하고,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검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노인 일자리 참여와 우울감은 정(+)적인 영향이, 우울감은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 공익형 일자리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게, 민간형 일자리 참여 시간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익형 일자리에서는 매개변수인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로 향하는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매개효과도 없었다. 그러나 민간형 일자리에서는 우울감이 매개변수인 삶의 만족도로 향하는 경로가 유의하여 유의미한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의 일자리에 대한 민간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노인 일자리 참여유형 | 삶의 만족도 | 우울감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or not types of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that greatly affect the level of life satisfaction is related to depression and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by using the correlation analy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effect of on the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against the depression was positive(+) and the depression had a correlation with life satisfaction. Therefore, the higher the number of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for the public sector was, the lower the satisfaction of life, and the more time of participating in the senior employment for the private sector was,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lif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order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senior life, the government, the local autonomous entity, and other companies should work together so that they can make a reasonable plan to create the employment of the private sector for jobs of the elderly.

■ keyword : | Type of Participation in the Senior Employment | Life Satisfaction | Depression |

I. 서론

1. 문제제기

노인문제는 저 출산 문제와 함께 미래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우리나라는 2017년 총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4%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1]. 고령사회는 사회경제적 부담의 증가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자립이 필요하고 노인의 경제활동이 건강과 사회참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와 정책이 대두되면서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정책적으로 노인들의 소외감과 빈곤문제를 예방하는 소득보장정책을 시작하였다[2]. 특히 노인일자리가 건강을 좋게 하고 생산적 활동을 하는 노인은 신체적·육체적 건강을 향상시키며 노년기 삶에서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만족도 향상에도 중요한[3]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오늘날 노인일자리는 안정된 노후생활과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4][5] 노인일자리 참여가 자아 정체감을 유지하고 자존감과 생활의 만족도를 향상[6]한다는 주장은 보편성을 가지게 되었다.

노인일자리 참여는 역할상실로 인한 긴장과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우울감은 낮아지고 가정에는 자기존중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된다[7][8]. 또한 노인일자리 참여가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단편적 접근보다는 포괄적인 접근이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다 [9].직업이 있는 노인은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안정과 자립기회를 제공하고, 은퇴로 인한 공식적 일자리에서 벗어난 노인은 비공식적인 일자리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 참여유형과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초고령사회에 당면한 노인들에게 어떠한 노년기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책을 준비할 수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노인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안녕, 행복감, 만족도 등으로 개인이 살아가는 동안 인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있다. 삶의 만족도 개념을 살펴보면 Negatron et al.[10]에 의하면 매일 매일 사회활동과 사회적응에 따른 상호작용으로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인지한 것에 대한 만족이 삶과 감정이 일치할 때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적지지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자신이 느끼는 정도라고 하였다[11].

노인의 삶의 만족이론을 살펴보면 노년기에 사회활동 참여 형태에 따라 빈곤해소 및 소외감을 극복하고 소득보장과 건강을 유지함은 물론 안전감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유지 하도록 하는 것이다[2]. 그러므로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이 있는 것은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만족도는 다르지만 노인이 사회적 관계에서 원하는 일을 하고 사회적지지 받으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다[6].

아울러 노인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참여 전에 비해 활발한 사회적 친분관계로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우울감은 감소하는 삶을 살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12].

따라서 노년기 일자리 참여 기회를 창출하는 것은 노인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 해소를 노년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베이부머 세대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효과와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노년기에는 건강과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고 은퇴로 인한 사회활동 상실의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므로 생애주기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노인들의 사회활동과 환경에 따라 삶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사회적 관심을 두어야 한다.

2. 노인의 일자리 참여유형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 노인의

90.2%가 일한 경험이 있고, 현재 30.9%가 일을 하고 있는 중이며 이들 중 45.9%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24.4%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으며 9.8%는 평생 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3].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시장형이 있다[4]. 본 연구는 노인 사회활동은 공익형으로 시장형은 민간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공익형에서 사회활동한 노인의 인건비는 전액 정부보조금으로 지급되고 민간형에서 일하는 노인의 인건비는 정부보조금과 사업의 수익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다.

노인의 일자리 참여의 효과는 삶의 의미에 대한 동기 부여와 은퇴전 쌓은 지식을 지역사회에 봉사로 노인의 건강상태 유지 및 자부심, 자신감 제고 노인의 빈곤을 감소에 기여 한다[14]. 이처럼 노인의 일자리 참여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밝은 미래를 만드는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일자리를 통하여 사회적 친분관계와 소득발생으로 가족관계의 만족도가 높아져 가정경제의 여유와 질병, 우울감이 감소하여 의료비 절감의 효과도 나타난다 [15].

3. 노인의 우울감

우울감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의 하나로 의욕상실감에 따라 정서상태가 장기적인 불안정상태에서 신체적 질병이나 무력감에 빠져 활기를 잃어버린 부정적인 심리상태라고 정의하였다[16]. 또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만65세 이상 노인의 21.1 %는 우울증상을 지니고 있으며 도시노인은 21.7%로 이며 농어촌 노인은 19.8%로 도시노인 보다 조금 낮게 보고하였다[3].

노인의 우울감과 상관관계를 이루는 변수들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회적지지, 교육수준, 삶의 질, 신체건강, 인지기능, 친구 수, 생활비만족, 치료가능성, 가족지지 등이 있다. 또한 우울감의 구성요건은 일상생활의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요인은 사회심리적인 요인, 생리적 요인 등 다양한 삶에 의해 부정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갈등, 신체적 변화와 기능저하가 질병이나 자살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하였다[16][17].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노인의 우울감에 가장

큰 변수는 은퇴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는 빈곤으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과 소외, 고독, 고립 등이 겹쳐 이러한 영향으로 우울감에 따른 사회에 많은 부담이 된다[16]. 이에 대해 [18]은 노인들의 여가 참여특성을 통해 우울감은 사회적응과 여가만족 내지 수입이 많고 사회적응력이 높으면 우울감은 낮게 하는 효과를 만든다고 하였다.

노인들의 우울감은 질병이며 적절한 일자리 참여는 자살률 감소와 우울감 정도를 낮게 할 수 있다[19]. 따라서 노인의 우울감은 특정한 원인에 의해 발생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특성과 심리적 상태로 전반적인 환경에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노인의 일자리 참여는 삶에 긍정적인 태도와 행복감으로 심리적 문제가 되는 우울감이 감소된다.

4. 일자리 참여유형,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

노인의 일자리 참여는 삶의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노인 일자리 참여도가 높고 일자리에 만족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보였다[20]. 그리고 일자리 참여로 인해 보건의료비 지출은 적어지고 건강상태는 좋아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업 효과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유지로 자신감을 높여 줌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21][22].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노인 일자리 참여와 삶의 만족의 관계에서 대체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연구에서는 노인의 일자리 참여와 가족관계 또는 노인의 일자리 참여와 자존감이나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도 있었다. 이와 같이 노인 일자리 등에 참여 할수록 의료비 절감은 건강상태 양호로 삶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일자리 유형의 분류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는 없으나 기존의 연구의 공통점은 찾는다면 일자리 참여가 활발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결과를 보였다.

노인들의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노인의 우울감 및 삶의 만족도 관계는 서로 연관성이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고 가족지지가 높은 노인일수록 우울감은 낮다고 보고 하였다. 따라서 경제활동은 노인의 우울감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다[23].

노인들의 일자리사업 유형을 통해 소득 수준차이는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노인들이 민간경제 활동참여는 노인 일자리보다 우울감의 감소를 가져다주며, 일자리 유형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8]. 다시 말하면 민간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노인의 일자리 참여는 상실감에서 벗어나는 기회제공과 동기부여로 긍정적인 신념이 우울감과 연결되어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23].

이상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부정적인 시각과 다양한 상실감을 경험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도 있으나, 노년기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는 우울감을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우울감이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이 연구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노인들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와외의 관계에서 우울감을 통하여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는 노인 일자리 참여,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우울감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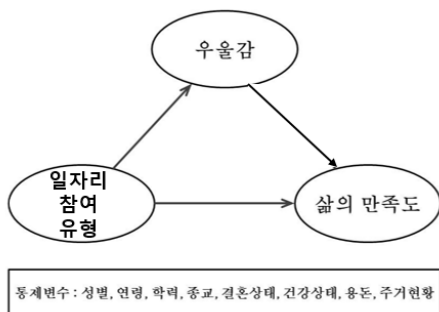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모형과 같이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가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선행연구를 근거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 노인 일자리 참여유형의 특성에 따라 우울감,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2 : 노인 일자리 참여유형의 특성에 따라 노인과의 삶의 만족도 간에 우울감은 매개할 것인가?

2. 조사방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60세 이상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영향에 관해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2017년 6월 부터 2017년 8월까지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용인시에서 노인 일자리 담당자 및 사회복지업무 담당자들이 1:1 면접방식과 응답자가 설문항목에 대해 직접 기입하는 방식을 하였다. 설문지 총 400부 회수하였으나, 무응답이거나 확실히 기입한 13부를 제외한 387부를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3. 측정도구

3.1 독립변인 : 노인 일자리 유형

본 연구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조사도구로 노인 보건복지 사업에서 “노인사회활동 :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을 “공익형”으로 하고, “노인 일자리 : 시장형(취창업)”을 “민간형”으로 한다[4][5].

3.2 종속변인 : 삶의 만족도

이 연구에 대한 삶의 만족의 척도는 Neugarten, Havighurt, Tobin[10]이 개발한 것을 Greenberg & Brown이 수정·보완 하고 남기민 외[24], 윤영신[25]의 연구에서 사용한 삶의 만족도에 대한 1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5점) 마다 Likert 척도로 검증한 부정적인 문항을 역접수화 하여 점수가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3.3 매개변인 : 우울척도

본 연구에서는 우울감에 대한 문항은 Zung[26]이 자가 평정 우울척도(Self-rating Depression)를 개발한 것을 장동산, 최준구[27] 등이 수정·변안하고, 김재현[18]이 사용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에 높은 영향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3.4 일반적 사항

본 연구에 사용한 측정도구는 설문지로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10문항(성별, 연령, 학력, 종교, 배우자 유무, 건강 등)으로 구성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하였다.

셋째,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변수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를 확인을 위해 3단계 Sobel test로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설문조사에 총 387명의 노인 중 ‘남자’ 190명, ‘여자’ 197명이 참석하였다. 항목별 중 가장 많은 수는 연령별로는 ‘60~64세’(25.06%)가, 학력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34.37%)가, 종교 없음(29.46%)이, 결혼상태는 기혼(54.52%)이, 건강상태는 보통이다(45.99%)가, 가계수입은 100만원 미만(45.99%)이, 용돈은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29.97%)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가구 유형은 노인 부부가구(37.47%)가, 주거형태는 자택(47.29%)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노인의 결혼 상태는

‘기혼’ 211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 이 ‘사별’ 121명, ‘이혼’ 23명 순으로. 우리나라에서 황혼이혼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노인의 건강상태는 ‘보통 이다’ 178명, ‘건강하다’ 106명으로 보통 이상으로 건강하게 보였다.

2. 일자리 참여유형에 따른 우울감과 삶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

2.1 공익형 일자리 상관관계

본 연구의 공익형 일자리에 대한 변수 간 상관관계는 [표 1]과 같이 참여횟수와 참여시간은 .511, 참여기간과 참여횟수는 .406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다른 주요변수들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 공익형 일자리의 상관관계 (N=387)

변수	일 자 리				⑤ 우울감	⑥ 삶의 만족도
	① 참여기간	② 참여횟수	③ 참여시간	④ 기관평가		
①	1					
②	.406**	1				
③	.245**	.511**	1			
④	.161	.318	.192	1		
⑤	.146	.157	.239	-.075	1	
⑥	.130	.106	.178	.107	-.326**	1

*p<.05 **p<.01 ***p<.001

2.2 민간형 일자리 상관관계

본 연구의 민간형 일자리에 대한 변수 간 상관관계는 [표 2]와 같이 참여시간과 참여횟수에서는 .741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참여기간과 참여횟수는 .573과 참여기간과 참여시간 .525로 다소 높았다. 또한 다른 주요변수들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2. 민간형 일자리의 상관관계 (N=387)

변수	일 자 리				⑤ 우울감	⑥ 삶의 만족도
	① 참여기간	② 참여횟수	③ 참여시간	④ 기관평가		
①	1					
②	.573**	1				
③	.525**	.741**	1			
④	.152	.331	.274	1		
⑤	.277	.335	.419	-.243**	1	
⑥	.220	.345	.352	.406**	-.316**	1

*p<.05 **p<.01 ***p<.001

3. 일자리 참여유형에 따른 우울과 삶의 만족도의 다중회귀분석

3.1 공익형 일자리 다중회귀분석

본 연구에서 모형 설명력은 수정된 R²인 결정계수는 40.1%이고, F값은 12.510로 회귀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보였다.

삶의 만족도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는 건강상태 (β=.192), 용돈(β=.188), 참여횟수(β=-.196), 일자리 참여 (β=.138), 우울감(β=-.151) 순이었다. 건강하고 용돈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152 높았다. 반면에 일자리 참여횟수가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게 보였다. 이는 참여횟수가 늘어나도 활동비는 정액으로 횟수 초과분에 대한 수당지급 불가로 자아존중감 상실로 보였다. 공익형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일자리 참여에 따라 또래 소통과 지역사회의 안전과 환경개선에 기여로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우울감은 낮았다. 결국 공차한계의 모든 수치는 0.1 이상으로 보여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에서 모형 설명력은 수정된 R²인 결정계수는 40.1%이고, F값은 12.510로 회귀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보였다.

표 3. 공익형 일자리 다중회귀분석 (N=387)

변 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1.027	.584		1.760	.027		
건강상태	.122	.040	.192	3.050**	.002	.625	1.599
가계수입	-.012	.040	-.024	-.305	.734	.387	2.583
용돈	.068	.026	.188	2.638**	.009	.489	2.043
급여	.001	.001	.151	1.511	.334	.248	4.036
참여기간	-.031	.023	-.079	-1.368	.257	.746	1.340
참여횟수(주)	-.095	.032	-.196	-2.996**	.001	.581	1.720
참여시간(일)	-.005	.045	-.011	-.116	.139	.273	3.660
사업 운영 능력 평가	.043	.035	.066	1.235	.193	.875	1.142
공익형 일자리	.105	.046	.138	2.261*	.000	.671	1.490
우울	-.125	.051	-.151	-2.467	.004	.665	1.503

F =12.510, R² =.436, adj. R² =.401, *p<.05 **p<.01 ***p<.001

3.2 민간형 일자리 다중회귀분석

본 연구에서 모형 설명력은 수정된 R²인 결정계수는 44.8%이고, F값은 8.250로 회귀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형의 변수는 참여시간 β=.251, t=2.097이고, 일자리에서는 β=.335, t=3.870을 보인 반면, 공익형은 참여시간 β=-.011, t=-.116이고 일자리에서는 β=.138, t=2.261은 일자리 참여시간이 증가할수록 공익형 보다 민간형이 .197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참여시간 증가에 따른 보상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상승으로 보였다. 공차한계의 모든 수치는 0.1 이상으로 보여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다.

표 4. 민간형 일자리 다중회귀분석 (N=387)

변 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1.117	.698		1.601	.027		
건강상태	.035	.051	.057	.698	.002	.654	1.528
가계수입	.033	.047	.059	.692	.734	.601	1.664
용돈	-.048	.031	-.136	-1.568	.096	.591	1.693
급여	.000	.001	-.013	-.129	.334	.465	2.149
참여기간	.001	.034	.002	.021	.257	.528	1.895
참여횟수(주당)	-.044	.052	-.103	-.845	.001	.297	3.371
참여시간(일당)	.108	.052	.251	2.097*	.139	.308	3.247
사업운영 능력평가	.033	.049	.057	.688	.193	.638	1.566
일자리	.223	.058	.335	3.870***	.000	.590	1.695
우울	-.109	.070	-.140	-1.566	.004	.549	1.823

F = 8.250 R² =.510 adj. R² =.448 *p<.05 **p<.01 ***p<.001

4. 우울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독립변수인 노인들의 공익형 일자리와 매개변수인 우울감이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매개변수인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로 향하는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간형 일자리와 매개변수인 우울감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로 향하는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이에 노인인 우울감이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매개변수인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로 향하는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다. 그러나 민간형 일자리와 매개변수인 우울감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매개변수인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로 향하는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에 노인의 공익형과 민간형이 우울감을 매개변수로 인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유의성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 검증결과 공익형 일자리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우울감은 매개효과가 없고, 민간형 일자리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우울감은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표 5.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매개 경로	매개 효과	S, T	P
공익형 일자리 → 우울감 → 삶의 만족도	없음	3.24	.001
민간형 일자리 → 우울감 → 삶의 만족도	부분매개	1.82	.069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유형에 따라 우울감,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해 표본으로 수집된 응답자들 중 가장 많은 수는 여자(50.9%)가 남자에 비해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60~64세'(25.06%)가, 학력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34.37%)가, 종교 없음(29.46%)이, 결혼 상태는 기혼(54.52%)이, 건강상태는 보통이다(45.99%)가, 가계 수입은 100만원 미만(45.99%)이, 용돈은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29.97%)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가구유형은 노인 부부가구(37.47%)가, 주거형태는 자택(47.29%)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가설검증을 위한 변수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일자리, 우울감, 삶의 만족도의 3개의 변수를 추출하여 최종 연구모형을 구성하여 가설을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및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형 노인일자리 분석결과 일자리 참여는 긍정적이고 참여횟수가 부(-)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는 참여횟수가 많아도 활동비는 정액으로 횟수초과분에

대한 수당 지급이 없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형 노인일자리 분석결과 일자리는 참여시간이 많을수록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참여시간이 길수록 참여에 따른 수당이 지금은 공정하게 인정받았다.

셋째, 삶의 만족도에 관한 일자리가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넷째, 노인의 일자리 참여유형에 따라 우울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하고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공익형 일자리는 삶의 만족도에서 우울감의 매개효과가 없고, 민간형 일자리는 삶의 만족도에서 우울감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들의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참여가 높으면 우울감은 낮게 삶의 만족도도 높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민간형 일자리 참여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노인 일자리 참여와 삶의 만족도를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 조사결과 일자리 참여 만족도가 높은 것은 건강상태, 용돈, 참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따라서 노인들의 가치와 노후생활의 보람을 느끼도록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유형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개인적으로 보완과 강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익형 일자리 숫자보다는 활동비 지급기준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개입이 요청된다. 민간일자리에서 우울감은 낮고 삶의 만족도의 높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근본적인 처우개선과 인간존중, 소득보장이다. 이런 대책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일부지역인 경기지역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중심으로 설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전국 노인들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 외에 다른 변수에 의해서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활동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7(6).
- [2]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노인복지의 새로운 도전 경기, 현학사, 2004.
- [3] J. W. Rowe and R. L. Kahn, *Successful aging*, New York, NY: Pantheon Books, 1998.
- [4]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2017.
- [5]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2017.
- [6] 이소정,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가 노인의 사회관계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노인복지학회, 제59권, pp.331-354, 2013.
- [7] 정명희,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사회활동 참여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9권, 제0호, pp.15-41, 2013.
- [8] 심옥수, “경제활동 노인의 일과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우울의 조절효과분석,”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17권, pp.161-180, 2015.
- [9] 고재욱·이동열,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만족도와 정책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31권, 제4호, pp.1209-1228, 2011.
- [10] B. L. Neugarten, R. J. Harvinghurt, and S. S. Tobin,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16, pp.134-143, 1961.
- [11] 하경분, 주민경, 송선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참여 만족도와 생활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0호, pp.160-170, 2014.
- [12] 강소량, 김병수, “노인 일자리사업이 고령자의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제50권, 제1호, pp.167-199, 2016.
- [13] 석상훈, 김현수, “노인빈곤의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생애근로 근로이력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제5권, 제3호, pp.99-124, 2012.
- [14] 박용두, 정민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이 셀프 리더십과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 및 직무성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9호, pp.216-226, 2013.
- [15] 장유미,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복지상담 교육연구, 제1권, 제1호, pp.121-148, 2012.
- [16] 이인정, “남녀노인의 우울, 삶의 만족에 대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의 차이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36권, pp.159-180, 2012.
- [17] 엄인숙, “노인의 생활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복지행정논총, 제22권, 제1호, pp.73-90, 2012.
- [18] 김재현, 노인들의 여가 참여특성에 따른 우울감, 사회적응, 여가만족, 삶의 만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19] K. Karban, *Social Work and Mental Health*, Cambridge: Polity Press, 2011.
- [20] 장신재, 조지영,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지지, 정서적 문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225-235, 2014.
- [21] 오영진,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참여특성과 만족도가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남부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22] 유용식,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 pp.129-139, 2016.
- [23] 이난희, 노인계층의 우울 변화 결정요인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24] 최영호,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여부와 사업 참여 만족도에 대한 요인 연구, 성결대학교 일반대학

- 원, 박사학위논문, 2013.
- [25] 남기민, 박현주, “노인의 종교활동과 사회활동 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죽음 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 49권, pp.405-428, 2010.
- [26] 윤영신, *생물심리사회-영성(BPSS)모델이 노년기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27] W. W. K. Zung and N. C. Durham,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 Gen. Psychiatry, Vol.12, pp.63-70, 1965.
- [28] 장동산, 이길홍, 민병근, “한국청소년의 불안 및 우울성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앙의 대지, 제10권, 제4호, pp.405-422, 1985.

저 자 소 개

박 명 옥(Myung-Ok Park)

정회원



- 2014년 2월 : 가천대학교 행정대학원(사회복지학석사)
- 2018년 2월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사회복지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외래교수

<관심분야> : 노인 · 청소년복지, 사회복지정책

문 재 우(Jae-Woo Moon)

정회원



- 1995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보건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 우울, 자살, 건강행태